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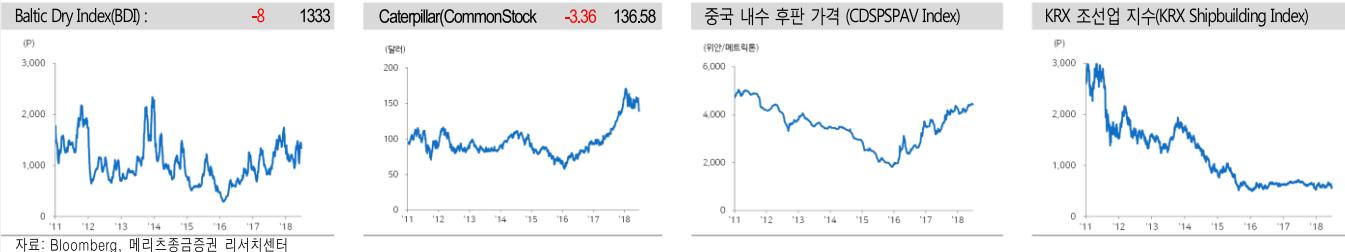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 업체명 | 시가총액 (십억원) | 외국인지분율 (%) | 증가 (원) | 1D | 1M | 3M | YTD | PER(x) | | PBR(x) | | ROE (%) | |
|----------|---------------|---------------|-----------|------|-------|-------|-------|---------|-------|--------|-----|---------|------|
| | | | | (%) | (%) | (%) | (%) | 18E | 19E | 18E | 19E | 18E | 19E |
| 현대중공업 | 7,711.9 | 16.2 | 111,500 | 0.9 | -8.6 | -24.4 | 16.2 | 77.7 | 37.2 | 0.5 | 0.5 | 0.7 | 1.4 |
| 현대중공업지주 | 6,009.8 | 21.9 | 369,000 | 0.4 | -9.1 | -11.5 | -3.1 | 5.0 | 4.1 | 0.7 | 0.6 | 14.1 | 14.7 |
| 현대미포조선 | 744.0 | 4.1 | 72,900 | -0.1 | -11.5 | -4.6 | -36.1 | 6.9 | 6.0 | 0.6 | 0.6 | 9.3 | 9.7 |
| 현대건설기계 | 1,432.1 | 8.6 | 145,000 | 2.8 | -11.9 | -15.9 | -14.2 | 9.2 | 6.8 | 1.0 | 0.9 | 11.7 | 13.9 |
| 삼성중공업 | 4,643.1 | 17.0 | 7,370 | 1.8 | -5.3 | -8.1 | 13.9 | 46.5 | 23.1 | 0.4 | 0.4 | 1.0 | 1.9 |
| 대우조선해양 | 2,819.5 | 3.5 | 26,300 | 5.0 | -4.5 | -6.7 | 89.2 | 7.9 | 11.4 | 0.8 | 0.8 | 10.9 | 6.8 |
| 한진중공업 | 1,802.0 | 9.0 | 90,100 | 2.7 | -6.6 | -14.6 | 14.5 | 19.4 | 14.0 | 0.7 | 0.7 | 3.6 | 4.8 |
| 한진중공업 | 330.9 | 6.2 | 3,120 | 2.1 | -8.9 | -0.2 | -5.7 | 62.8 | 15.7 | 0.5 | 0.4 | 0.7 | 2.8 |
| 현대엘리베이터 | 2,743.0 | 21.2 | 101,000 | 0.0 | 16.2 | 32.4 | 85.7 | 17.8 | 17.4 | 25 | 22 | 14.6 | 13.3 |
| 두산밥캣 | 3,218.0 | 25.7 | 32,100 | 3.7 | -5.9 | 1.6 | -10.3 | 11.8 | 11.1 | 0.9 | 0.9 | 7.4 | 7.6 |
| 현대로템 | 2,571.3 | 7.3 | 30,250 | 2.0 | 8.0 | 100.3 | 61.3 | 39.0 | 26.6 | 1.7 | 1.6 | 4.5 | 6.3 |
| 하이록코리아 | 388.0 | 47.9 | 28,500 | 1.1 | -1.6 | 26.9 | 26.7 | 12.9 | 11.8 | 1.1 | 1.0 | 8.8 | 9.0 |
| 성광밴드 | 337.5 | 17.3 | 11,800 | 2.2 | -11.3 | 3.1 | 18.2 | 1,043.1 | 423 | 0.7 | 0.7 | 0.1 | 1.8 |
| 태광 | 328.6 | 12.9 | 12,400 | 3.3 | -3.9 | 2.1 | 29 | 74.0 | 36.2 | 0.8 | 0.8 | 1.0 | 2.1 |
| 두산중공업 | 1,839.2 | 13.1 | 15,700 | 0.3 | -15.6 | 4.7 | 2.3 | 18.8 | 102 | 0.5 | 0.5 | 3.6 | 5.4 |
| 두산인프라코어 | 2,058.6 | 16.7 | 9,890 | 5.3 | -5.4 | 8.0 | 13.8 | 6.9 | 6.4 | 1.1 | 0.9 | 16.3 | 15.2 |
| 두산엔진 | 130.6 | 4.1 | 3,965 | -0.4 | -16.0 | 1.6 | 54.3 | -11.8 | -23.4 | 0.3 | 0.3 | -3.0 | -3.5 |
| 한국항공우주산업 | 4,079.3 | 13.3 | 41,850 | 3.8 | -6.0 | -14.9 | -11.8 | 32.6 | 23.8 | 3.3 | 2.9 | 10.2 | 13.0 |
| 한화테크윈 | 1,346.6 | 12.6 | 25,600 | 0.0 | -10.5 | -11.9 | -28.0 | 30.5 | 16.9 | 0.6 | 0.6 | 2.0 | 3.4 |
| LIG넥스원 | 988.9 | 8.9 | 44,950 | 1.2 | -0.9 | -8.1 | -24.8 | 19.4 | 13.2 | 1.5 | 1.4 | 8.6 | 11.4 |
| 태웅 | 329.1 | 4.6 | 16,450 | 2.8 | -11.1 | -10.8 | -15.0 | N/A | N/A | N/A | N/A | N/A | N/A |
| 동성화인텍 | 191.9 | 4.1 | 7,110 | -4.4 | 7.1 | -10.3 | 40.8 | -52.3 | 74.8 | 22 | 22 | -4.3 | 3.1 |
| 한국카본 | 284.0 | 13.4 | 6,460 | 3.7 | 3.4 | 24 | 20.5 | 352 | 183 | 0.9 | 0.8 | 2.5 | 4.7 |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나이지리아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 올라

로열더치셀이 나이지리아 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끝내는 대로 봉가사우스웨스트 해양플랜트의 입찰초정 서류를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짐. 나이지리아 정부가 협의에서 기자재 일부를 생산해야 한다고 규제해, 나이지리아 현지에 조선소를 보유한 삼성중공업이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대만 에버그린 “삼성중공업 발주 컨선에 스크러버 장착”

대만 Evergreen이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1.2만TEU급 컨테이너선 8척과 동형급 선박 12척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으로 알려짐. 선사는 스크러버 장착에 척당 5백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며, 투자금은 1년 반 만에 회수할 것으로 밝힘. 지난 2월 삼성중공업은 Evergreen에서 척당 9,351만달러에 수주함. (EBN)

Torm, PC 13척 스크러버 채택

덴마크 선사 Torm은 2018~20년 중에 인도예정인 13척의 PC선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으로 알려짐. 해당 PC선은 CSSC에 발주했고, 선박 별로 사이즈는 다양하나 모두 Scrubber-ready로 건조될 예정임. 일반적으로 PC선은 사이즈가 작아, 척당 2백만달러가 소요되는 스크러버 장착이 드문 편임. (선박뉴스)

Temile enters LPG market with Nigeria LNG contract

나이지리아 EA Temile & Sons는 LPG 시장 진출을 위해 현대미포조선에 2.3만CBM급 LPG선 1+1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사는 나이지리아에서 LPG 최대 공급업체인 Nigeria LNG와 장기운송계약을 맺고서 나이지리아에 LPG를 수입할 계획으로 알려짐. 인도는 2020년 1분기로 예정됨. (TradeWinds)

해운업계, 선박에 탈황설비 장착 속도

2020년 환경규제에 대비해 국내 선사들이 스크러버 설치에 속도를 낸다고 알려짐. 폴라리스쉬핑은 Vale와 맺은 장기운송계약에 쓰일 15척의 벌크선에 스크러버 설치와 동시에 LNG-Ready로 건조할 계획임. 또한 현대상선, SK해운, 패온선 등 국내 대형 선사들도 스크러버 설치 계획이 있다고 알려짐. (EBN)

日정부, “韓,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 지급” WTO 제소키로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일본은 한국이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12.1조원을 지원했다는 점을 문제삼음.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은 평균 2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짐. (연합뉴스)